

2016. 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6.4.29	대전MBC 대회의실	8/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송인덕, 박희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4	-	2	11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1	-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8건	8건	3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자막활용 하길	토론 프로그램(시사광장) 4월 7일, 4월 24일 방송 자막 처리함	3월
기타	주간소식지 M- STORY 의료정보 코너 치과에 치중한 편인데 다양한 분야 전문의를 활용하길	M- STORY 소화기내과(4/13). 성형외과(4/20), 신경외과(4/27) 등 전문의 필진 다양하게 구성	3월
보도	인공지능 관심 높아 이공계, 과학계 보도 확충을	뉴스데스크(4/8 대덕특구, 4/29 여성이공계 진출 적극 유도) 등 보도	3월
교양	개발과 환경보존의 문제 지속적 관심을	도시 숲 월평공원 개발논란(2016.3) 성북동 골프장 개발 논란(2015.8) 인공호수 갑천천수구역 논란(2015.8) 새들의 쉼터, 공주 새들목 개발 논란(2015. 3) 등 지속적으로 시사프로그램에서 취재 방송	3월
교양	교양 로드다큐 프로그램(테마기행 길) 리포터 음향 불안정	야외촬영 프로그램 음향장비 사전점검 오디오 음질 확인 후 촬영	3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에 대한 외모발언(신체사이즈)주의	토크프로그램 출연진 외모발언 주의해 방송(4/3, 4/10, 4/17, 4/24)	3월
교양	알파고 개발한 하시비스 박사 특강과 같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 대표 특강 편성(2015.3.17). “미래트랜드” 서울대 김남도 교수 특강(2015.6.14) 등 방송 편성	3월
보도	후보자토론회 근거 없는 인신공격에 대한 진행자의 적절한 역할 필요	후보자 토론회(3/27, 4/3, 4/10)에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 없게 적절하게 유도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
위원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4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제20대 총선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여소야대에 어느 한 정당에 과반을 안겨주지 않았다. 물론 우리 충청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조선의원의 약진과 중량감 있는 다선의원의 존재로 충청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된다.</p> <p>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 조선의원은 모두 132명, 전체 정원의 44%로 우리 충청권에서도 19명의 국회의원 중 7명의 조선의원을 배출하였다. 어느 때보다 조선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이 궁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사광장 [20대, 조선의원에게 듣는다] 편(4월24일)은 시의적절한 때 지역민들에게 조선의원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을 전달해 준 편성이 되었다고 본다.</p> <p>그리고 이날 다룬 내용도 살펴보면 조선의원 각자로부터 20대 총선과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선이 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선거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으로 전체 토론 내용도 잘 구성하였다고 본다.</p> <p>특히 고병권 기자(대전MBC보도국)가 대담자로 참여하여 각 당선자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묻는 부분에서는 신선함도 있었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일부 풀어주었다고도 생각한다.</p> <p>일례로 시청자 위원인 본인이 속한 세종시도 KTX세종역이 당선자의 공약이고, 논산선거구의 김종민 당선자도 KTX논산역이 공약인데, 오송에서 논산 60km의 짧은 구간에 역사가 4개나 들어서는 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날 김종민 당선자의 간이역(교차역) 형태의 KTX역을 말하는 것이란 답을 듣고 전혀 허무맹랑한 공약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p> <p>끝으로 이날 우리지역 7명의 조선의원이다 함께 참석하여 토론에 임했다면 더욱 좋았을 거란 아쉬움은 많이 남았다(장백기).</p>	<p>시사광장 4월 24일 방송분 ‘조선의원에게 듣는다’에 지역 조선의원 7명을 모두 초청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자 했으나 의원 개인의 사정과 여야 균형, 대전MBC의 제작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부득이 4명만 초청하였다.</p>	○		
보도	<p>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힘든 행보를 하고 있다. 투타의 엇박자 속에 그동안 연패를</p>	<p>한화 이글스 관련 뉴스를 매주 월요일 정례화해서 방송하고 있다. 지역 팬의</p>	○		

<p>거듭했고 , 여전히 순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이번 주중 게임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올 시즌 들어 김성근 감독은 혹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외부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김 감독은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버리지 않았다. 대전mbc는 지난해 스포츠 다큐멘터리 ‘꼴지의 반격’ 에 이어서 올들어 지난달 ‘again 1999, 야신의 기적’ 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지역 야구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다큐멘터리 ‘ 꼴지의 반격 ‘ 은 최근 몇 년 동안 꼴지에 머물렀던 한화 이글스가 비록 가을 야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목처럼 꼴지의 반격에 한화이글스를 최고 인기 구단으로 탈바꿈 시켰다.</p> <p>김성근 감독하면 지옥 훈련으로 대변되는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성근 감독은 ‘ 모든 건 나쁘게 보면 한 없이 나쁘게 보인다.’ 고 얘기한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고수해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받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p> <p>이제 승률 2할대로 들어선 한화. 올 시즌이 끝날 때쯤 한화이글스는 어디쯤 서있을까? 5월이 가을 야구의 진입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매년 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과 라디오 중계방송으로 지역 방송사의 선두 주자의 위치에 걸맞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라디오 중계방송은 짜여 진 일정대로 나가면 되지만, 로컬 뉴스에서 보다 더 자주 접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흥경기뿐 아니라 원정경기 에서의 승리 소식을 전해 준다면 지역 팬들은 더 대전mbc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p> <p>더 한다면 월별이나 분기별로 일정 부분 시간을 할애해 한화 이글스의 경기 결과를 분석, 방송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김학선).</p>	<p>지지가 워낙 커,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차원이기도하다. 월별이나 분기별로 한화이글스의 경기력을 분석하는 보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대전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서 여성 앵커가 진행하는 ‘ mbc news 이모저모 간추린 소식’ 코너는 이 시간대에 새로운 변화를 느끼게 한다.</p> <p>시청자들에게 항상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방송사가 할 일이다.</p> <p>이 코너에서는 보통 4~5 개의 아이টে을 스피디하게 소화하고 있어서 보기에 시원스럽다.</p> <p>그런데 한 가지 거슬리는(?)게 있다.</p>	<p>메모판 사이즈를 조정했고, 자막 크기도 수정했다. 보다 나은 이모저모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배가하겠다.</p>	○		

	<p>여성 앵커가 들고 있는 메모판이 여성 앵커의 체격에 비해 다소 커 보여서 시청하기에 부담스럽다. 그 크기를 조금 줄여 본다면 자연스러울 듯하다(김학선).</p>			
<p>보도</p>	<p>시사광장 ,4.13 총선 무엇을 남겼나>(4월 17일)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적절한 토론이 아니었나 싶다. 처음에 간결하고 요약적인 내레이션으로 대전, 충청권에서의 총선결과를 정리한 것은 효과적이고 친절했다. 다만 게스트로 나온 교수님들이 차례로 발언했는데 3당 관련자들이 선거 당시 생생한 상황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면 좋았겠다. 일반론에 입각해서 언급한 점은 흥미유발 요소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각 지역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좋았겠다(성정모).</p>	<p>4.13 총선 결과를 한 번의 토론으로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 4월 17일 '4.13 총선 무엇을 남겼나?' 4월 24일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5월 1일 '4.13 총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 등 세 차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p>		
<p>교양</p>	<p>건강플러스에서 봄철 알레르기 질환(4월 2일)에 대해 방송하였다. 우리 식구들이 전부 알레르기 질환 그중에서도 비염이 있기에 흥미가 생겨 보았다. 방송에서는 교수님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일교차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특히 알레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인상 깊었다. 천식과의 관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의 소개도 자세하고 좋았다(성정모).</p>	<p>TV 주치의에서 소개되는 질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시청자들이 전문의의 설명을 통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p>		
<p>기타</p>	<p>과학기술계를 대표하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대덕특구, 대덕과학벨트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이에 대해 보도와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역할도 주문하였었다. 100년 친구 대전 MBC 슬로건에 맞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방송사로서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 새로 시청자위원회에 위촉될 분도 과학기술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사람이면 좋겠다(김명수).</p>	<p>이 번 새롭게 과학기술을 대표해 열정적인 분이 위촉될 예정이다. 우리지역이 대덕특구가 있는 만큼 과학기술 관련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다.</p>		
<p>기타</p>	<p>오프라인, 온라인 홍보매체 역할을 하는 M- STORY를 매주 읽어본다. 방송제작과 관련 제작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좋았고 방송제작을 하는 방송인들의 따뜻한 감성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매주 발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겠지만 끊임없이 계</p>	<p>M- STORY를 통해 우리 지역 시청취자들에게 대전MBC의 이모저모, 취재 뒷이야기 등을 소개해서 전달해드린다. 쉬지않고 계속해서 발간을 할 예정이다.</p>		

	속 제작해주길 바란다(한찬희).				
교양	프로그램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그 속성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방송이 시청자의 뇌리에 오래 남는다. 시청자 중심의 방송으로서 시청자를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 현재 토크 앤 조이나 아침이 좋다 등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정진해주길 바란다(유덕순).	이웃에게 나눔을 실현하는 빵집가게 임영진 부부의 이야기 같은 따뜻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일회성 방송이 아닌 공동체 일원임을 확인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다.	○		
보도	미국 유학시절 미국의 다양한 채널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저녁 7시 이브닝뉴스를 보니 그 지역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독보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지역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 지역뉴스가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대전MBC도 지역의 독보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여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방송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김형주).	다양한 기획보도와 심층취재를 통해 대전MBC만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썩은 밀가루’ 파문을 단독보도하며 고발성 뉴스를 강화하고 있다. 발전적인 제안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교양	허참의 토크&조이 「60년 동네 빵집 임영진, 김미진 부부」 편(4월 15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주 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대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외지인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전 제과점 성심당 사장님 부부가 스튜디오에 찾아와 성심당의 역사와 발자취를 집어보고 사장님 부부의 성공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방송에는 성심당을 대표하는 빵들이 앞에 나와 있어 더욱 자연스러운 토크 프로그램처럼 보였다. 대전을 상징하는 문화와 대전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장님 부부의 말씀은 대전 시청자들의 공감과 자랑스러운 미소가 절로 나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화면을 통해 여러 사람이 오가고 아름답게 빵을 나누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 방문객과 도움을 받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진솔한 인터뷰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감동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송은 게스트 특성상 음식을 시식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는 보는 이들의 식욕을 자극하였다. 특히 기존 진행자들의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유도와 사장님 부부의 센스 넘치는 대답들은 안정적이고 매끄러운 진행과 유쾌하고 즐	출연자와 시청자가 소통하는 시간, 따뜻한 감동을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걸맞는 출연진을 섭외하고자 노력을 한다. 임영진 부부는 60년 빵집의 역사를 이어 나가면서 노숙자 쉼터 등에 기부를 하는 빵의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려 우리 이웃에 감동을 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을 더욱 발굴하여 시청자들과 교감을 나누겠다.	○		

	<p>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만한 소중한 시간이었다(오덕성).</p>				
<p>교양</p>	<p>이번 주 건강플러스(4월 16일)는 취나물로 할 수 있는 요리법과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봄철 나물인 취나물의 효능과 다양한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밥상 시간은, 봄을 맞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기적절한 주제로 판단된다. 특히 건강밥상의 영상 진행과 영상 디자인이 세련되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p> <p>TV 주치의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전문의와 진행자의 대화와 영상자료를 통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본 방송에서 출연하신 이진석 전문의는 모형을 이용한 차분한 설명과 적절한 다이어그램을 제시해 주고, 진행자는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p>TV 주치의 시간에는 전문의가 질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대처방법에 관해서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자료를 활용해 설명을 하고 있다. 어려운 의학용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p>	<p>○</p>		